

공익활동 바.자.회.

공론장을
경험해보지 않은
담당자들의
좌충우돌
공론장 만들기



목 차

	활동자료집을 펴내며	2
	공익활동 바.자.회. 사업 소개	4
	<hr/>	
'바'꿔보기 공론장 이미 많잖아! 새롭게 바꿔볼 수는 없을까?	01 기획 회의 _ 공론장에 참여해 본 경험이 없는 담당자들의 공론장 기획	7
	02 자문 회의 _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때	10
	03 의제선정위원회 _ 드디어, 첫 발을 떼다	12
	04 공동협력추진단 구성 _ 활동가를 찾습니다	14
	05 공동협력추진단 워크숍 _ 함께 모이니 이렇게 좋을 수가!	16
		<hr/>
'자'발적으로 실행하기	01 공론장 만들기 _ 공동협력추진단과 함께	21
	02 의제공론장 실행	23
	03 아동권 _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함께 해야 할 사람과 환경을 중심으로”	24
	04 외로움 _ “누구나 한번쯤 외로움을 겪어본 적이 있지 않나요?”	26
	05 순환경제 _ “버리지 않고 어떻게 순환시킬 수 있을까요?”	28
	06 보행권 _ “걷는 사람들이 도시의 일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33
	07 디지털 약자 _ “디지털 약자, 이게 내 잘못이야?”	35
	08 시민공론장 실행 _ 내가 느끼는 00문제, 공익활동으로 풀어볼 수 있을까?”	37
	09 온라인 플랫폼 운영 _ 공익활동 바.자.회.	40
	10 후속모임 운영 _ 정책제안서 작성 워크숍	42
	11 캠페인 운영 _ 의제공론장 결과물 전시회 “more better, together”	44
	12 캠페인 운영 _ 메시지를 찍는다 / 빗물 시음회 / 청년 외로움 극복육	46
	13 시민실천용품 제작	48
	<hr/>	
'회'고하기	01 공동협력추진위원 2인의 이야기	53
	02 의제선정위원 1인의 이야기	56
	03 자료집을 마치며 _ 공론장 조금은 감이 잡혔다?! - 공론장을 기획하는 당신에게 담당자들이 전하는 마지막 이야기 -	58
		<hr/>
부록	01 만족도 조사지 양식	60
	02 정책제안서 양식	63

활동자료집을 펴내며

기획자의 말 최미령

안녕하세요.

2023 시민공익활동지원 플랫폼 사업 담당자 최미령입니다.

2023년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일상 속 공익활동의 상상, 실천을 목표로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 첫 해의 사업인 만큼 시민들은 요즘 어떤 문제에 관심을 가질까? 공익활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가 해왔던 비영리 단체의 활동들, 운동들을 ‘공익활동’이라는 이름 안에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 라는 고민으로 시민공익활동지원 플랫폼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공론장이라는 형태로 기획한 이번 사업을 맡게 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큰 부담과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공론장에 대해서 들어보기는 했지만 한번도 참여해 본 경험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형태의 사업을 기획하려니, 어디서부터 무엇을 시작해야할지 참 막막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비영리 단체를 리스트업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팀장님과 예지 매니저님과 함께 초기 기획 회의, 공론장 전문가 분들의 자문을 구하니 그제서야 조금씩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5개의 의제를 선정하기 까지 15번 정도의 다양한 분야의 활동가들을 만나며 자문회의를 진행했는데 돌아보면 그 앞단의 기획 시간은 저에게 그 자체로 큰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의제선정위원회를 시작으로 일일이 공동협력추진위원들께 섭외 연락을 돌리고, 공론장을 기획하다보니 어떻게든 사업이 진행되고 있더군요. 많은 기관, 단체, 활동가분들과의 협력 덕분에 저의 부족함이 채워지고 공론장에서 함께함이 기쁨이 되는 시간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어느덧 사업을 마무리하며 저희의 이런 경험을 잘 정리하면 재미도 있고, 공론장 사업을 기획하는 누군가에게는 작은 도움이 될까하여 ‘좌충우돌 공론장 만들기’ 라는 제목으로 자료집을 만들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사업의 내용과 결과가 정리되어있는 <2023 시민공익활동지원 플랫폼 사업 결과보고서>와 저희의 실제적인 기획과정을 담은 <공익활동 바.자.회.> 총 2종의 자료집을 만들었는데요. 이 자료집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꼭 닿기를 바라며 재밌게 봐주세요! :)

기획자의 말 박예지

안녕하세요.

미령 매니저님과 함께 사업을 담당한 박예지입니다.

표지에 쓰여있듯 이 자료집은 공론장을 경험해보지 않은 담당자들의 좌충우돌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기획할 때는 나름 완벽하다고 생각하며 박수를 쳤지만 생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 섬세하게 준비했다고 생각했지만 아쉬움이 남는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약간의 아쉬운 마음을 가진채로 목차를 구성하고 나니 많은 일을 해냈다는걸 알게 되었고, 이젠 아쉬운 마음보다는 미령 매니저님과 저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저희처럼 공론장 기획을 시작하시는 분들 또는 모르는 분들께 일종의 가이드처럼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정해진 정답이 있는건 아니니까요. 공론장 그리고 이 자료집을 매개로 앞으로도 많은 분들과 함께 다양한 공론의 장을 펼쳐나가길 바라봅니다.

'좌충우돌 공론장 만들기'가 제작되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리며 :D

공익활동 바.자.회. 사업 소개

사업명

2023 시민공익활동지원 플랫폼 (2023. 3. ~ 12.)

사업의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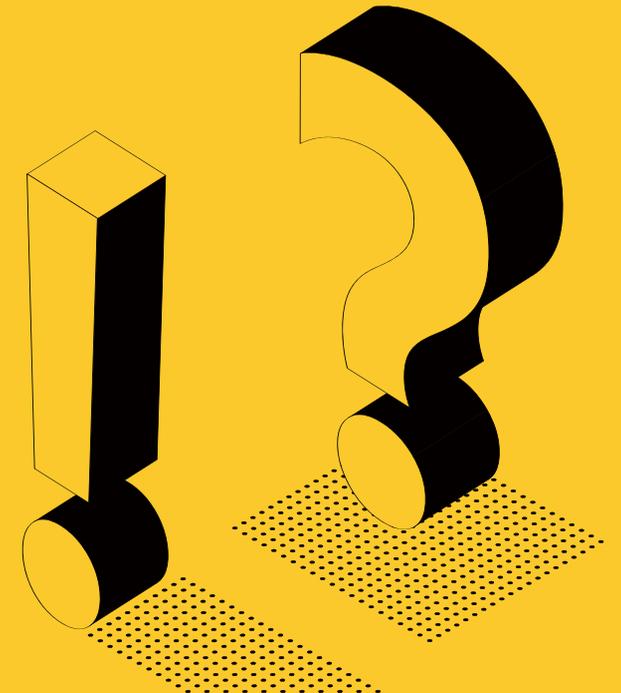
- 시민공익활동 발굴·지원·촉진을 통해 생활체감형 지역 사회문제 해결 및 서울의 공공의제 발굴
- 기후위기, 사회적 약자, 시민사회 협력 등 사회 핵심의제와 연계된 시민공익활동 활성화 지원
- 시민공익활동 기반 마련 및 지속 유지를 위한 공동협력체계 구축

세부 사업 내용 및 일정

구분	3	4	5	6	7	8	9	10	11	12
사업 기획	●	●	●							
기획자문평가단 운영 (기초 조사 및 자문회의)		●	●	●	●	●	●	●	●	●
의제 선정위원회 구성 및 5개 의제 선정			●	●						
공동협력추진단 섭외 및 운영				●	●	●	●	●	●	●
시민공익활동 발굴 및 시민활동플랫폼 운영 (5개 의제 공론장 및 온라인 플랫폼 운영)						●	●	●	●	
시민 공론장									●	
광고 및 캠페인 실시									●	
시민실천용품 제작 및 배포									●	●
결과보고 자료집 제작(2종)										●

‘바’퀴보기

공론장 이미 많잖아!
새롭게 바꿔볼 수는 없을까?



01 기획 회의

공론장에 참여해 본 경험이 없는 담당자들의
공론장 기획

요약

기초 조사 : 분야별 비영리 활동 단체 목록화 30개 이상 (4월~5월)

기획 회의 : 6회(5월~6월)

바퀴보기 ①

기초 조사

1. 지역 및 이슈 분석 : 아래의 분류표에 맞추어 총 35개의 활동 단체를 목록화 함

이슈 분류	자치구/권역 분류	주최 기관명	키워드
-------	-----------	--------	-----

2. 이슈의 범주화 : 총 14가지의 이슈로 범주화

지역자치, 장애인, 기후/환경, 에너지, 청년, 젠더, 아동/교육, 노인, 의료복지, 주거취약, 노동, 청소년/대안교육, 빈곤, 통일/평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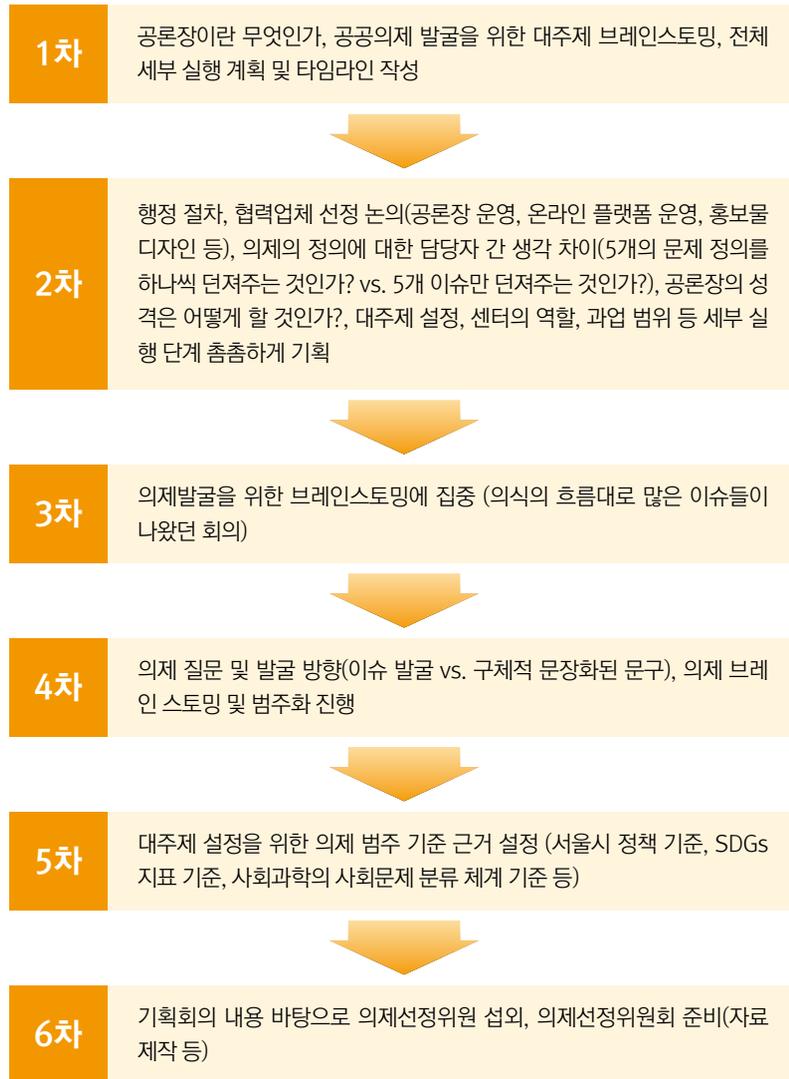
3. 자문 회의를 받아보고 싶은 분야 및 단체 선별

기후위기/환경	성대골에너지전환마을, 서울환경연합, 서울시 새활용플라자 등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하고 행복한 문화	품 청소년문화공동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318 상상발전소, 아동권리보장원, 성미산 마을 등
동북아 역사/외교문제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민족문제 연구소 등
교통/이동	공공교통네트워크 등
인권 (장애인, 노동, 비정규직 노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소한소통 등
노인/어르신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등
청년	성북청년시민회, 한반도정책컨센서스, 민달팽이유니온, 서울청년센터 오랑 등
중장년	서울시50플러스재단, 두두협조합 등
공론장 설계	(주)회의설계소,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민주시민교육 결, 은평상상 등

바퀴보기 ②

기획 회의

1. 기획 회의 진행 과정



2. 결과

- 의제선정위원회 구성
- 대주제 설정 : 5개의 사회 문제를 개별 주제로 함

3. 담당자의 한 마디

“막막했습니다. 치열했습니다. 공론장의 기본적인 설계과정도 익혀야했고, 각자 의제라는 단어를 두고 떠올리는 것도 달랐으며, 무슨 주제로 공론장에서 이야기를 나눠야 할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출근해서 4시간 이상 회의만 했던 날도 있었습니다.”

#1. 기획회의 시민공공플랫폼
#2. 기획회의 시민공공플랫폼
#3. 기획회의(의제발굴을 위한 브레인스토밍)_예지/미령
#4. 기획회의(의제발굴을 위한 브레인스토밍)_with센터장님
#5. 기획회의(의제 범주 구성 논의)_예지/미령
#6. 기획회의_행정 업무 분장
#7. 의제선정위원회 준비 회의
#8. 사업 운영 회의(23.07.11.)
#9. 사업 운영 회의(23.07.19.)
#10. 사업 운영 회의(23.07.31.)
#11. 사업 운영 회의(23.8.16.)
#12. 사업 운영 회의(23.8.25.,28.,29.)
#13. 사업 운영 회의(23.9.4.)
#14. 사업운영 논의(의제공론장 이후 향후 추진계획)
#15. 온라인 플랫폼 콘텐츠 기획회의
#16. 향후 일정 논의(10/27~)
#17. 사업 변경 논의(11.03)
#18. 종합공론장 진행 점검 회의(11.08)
#19. 향후 일정 기획 회의(11.13.)

기획 회의록을 모아놓은 폴더를 보니 참 많은 회의를 거쳤네요 ^^

02 자문 회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때

요약

1. 자문 회의 : 총 15회(5월~7월)

2. 만남 개인 및 단체 목록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 (주)회의설계소 / 품 청소년문화공동체 / 성북청년시민회 / 젤리장 / 두두협동조합 / 1318 상상발전소 / 변재원 소수자 연구자 / 김현미 교수-이주자 연구자 /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 서울환경연합 /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 한국여성단체연합 / 서울시정책지원담당관

바꿔보기 ③

자문 회의

1. 자문회의 키워드와 내용 요약

분야	공론장 설계/ 운영	청소년/ 청년	결과물 활용/ 캠페인	중장년	장애인	이동권
	공론장의 개념	청소년이 공익활동의 주체가 되는 공론장	공론장의 의제를 구체화 하는 작업 자체가 캠페인	신중년이라는 새로운 세대의 등장	장애인 건강권	저상버스 도입 법적 의무화
	하고 싶은 공론장의 정의와 성격 명확화	청년들이 느끼는 안전에 대한 두려움	스프린트 : 짧은 시간동안 시민의 의견을 취합, 아이디어 제안, 간단한 실험	중장년들을 위한 공간 마련	장애인의 노동권	
	홍보, 참여자 모집	교육격차 해소		60-70대를 바라보는 시선과 정책 재정립	발달장애인과 친구 되기	
	공론장 피로도 어떻게 바꿔볼까	청소년공간 확충		팬슈머 사업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온라인 플랫폼				통합늘이더	

분야	다문화/ 이주자	아동/보육	기후/환경	젠더	정책 제안
	난민 자조그룹	아동의 생활권	플라스틱 / 재활용과 자원순환	성평등 인식개선 캠페인	예산, 시기 등의 고려 필요
	한옥커즈 : 난민과 한국인들의 문화교류	저출생 대책의 방향성 고민	고립육아와 공동육아	보편적출생 등록제	의제별 담당 부서 지정하여 협력하는 방법
	다문화적 노동권 감수성 증진	아동의 참여권	온실가스 배출과 차량억제	돌봄 영역	구체적인 문제와 질문 설정
	차별어 대신 공존어		동물권	여성운동 차원에서의 이슈들	성과관리 지표 설정 필요
	문화교류 프로그램		개문냉방		
	경계 넘나들기		원전		
			수리권		

2. 결과

- 자문회의에서 다루었던 내용의 대부분 5개 의제로 실현 및 구체화
- 자문회의의 분야들이 개별적인 독립의제를 넘어 5개 의제 내에 다양한 관점으로 반영

3. 담당자의 한 마디

“자문 받은 모든 분야가 다 중요해서, 이 얘기를 들으면 이게 중요한 것 같고, 저 얘기를 들으면 저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다룰 수는 없었고, 센터의 의견, 시민들의 의견,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서 이제는 선택과 집중으로 방향을 결정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시 곳곳을 누비고 다녔던 최미령, 박예지 매니저”



03 의제선정위원회 드디어 첫 발을 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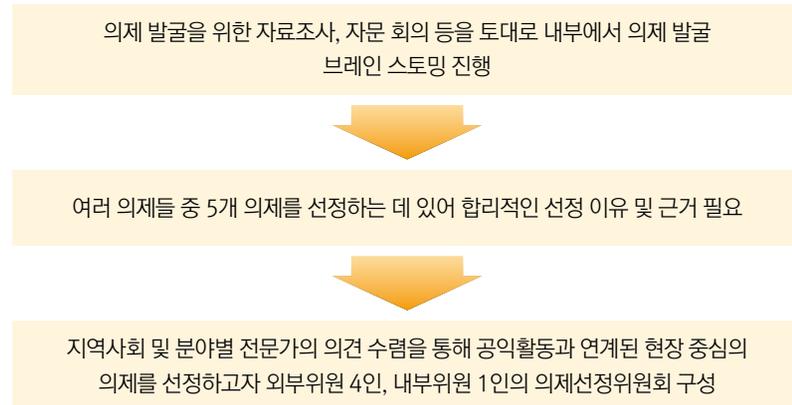
요약

- 1. 일시 : 2023년 6월 30일(금), 10:00~12:00
- 2. 장소 :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마주보다>
- 3. 목적 : 2023 시민공익활동지원 플랫폼 사업에서 다룰 5개의 의제 선정
- 4. 참석인원 : 총 8명 (의제선정위원 5명, 배석인 3명)
- 5. 의제선정위원 명단

이름	소속기관(또는 활동명)	전문 분야
박내현	기록활동가	인권, 성평등, 노동, 지역자치
박승배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도시, 보행권 운동
안현찬	서울연구원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active aging
정주연	다시입다연구소	기후, 환경, 의류 순환
젤리장	공공소통크리에이터	공공캠페인, 문화 기획, 홍보

바퀴보기 ④ 의제선정위원회

1. 개최 과정



2. 결과

- 5개의 최종 의제 선정

최종 선정 의제				
아동권	외로움	순환경제	보행권	디지털 약자

3. 담당자의 한 마디

“감격스러웠던 순간, 드디어 시민공익활동지원 플랫폼 사업의 첫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백지에 선명한 밑그림 한 줄이 그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실생활에 밀접하고 중요한 의제를 선정하기 위해 센터 내부만의 결정보다는 외부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기로 한 것이 이번 공론장 5개의 의제를 선정하는 데 있어 잘한 선택이었고, 시민공익활동지원 플랫폼 사업이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론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4 공동협력추진단 구성

활동가를 찾습니다

요약

1. 공동협력추진단이란?

2023 시민공익활동지원 플랫폼의 5가지 의제별 관련 분야 활동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의제공론장을 함께 기획하고 만든 사업 협력 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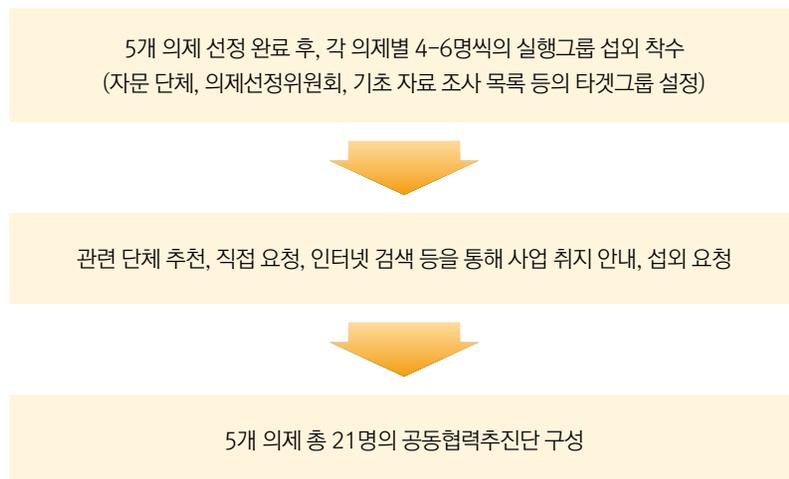
2. 공동협력추진단 구성 방법

- 의제선정위원 및 유관단체 추천
- 분야별 관련 활동 단체 전문가 직접 섭외

3. 구성 기간 : 7월~8월

바퀴보기 ⑤ 공동협력추진단

1. 구성 과정



2. 결과

아동권	외로움	순환경제	보행권	디지털약자
전주리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박내현 (기록활동가)	정주연 (다시입다연구소)	배성호 (송중초등학교)	김명희 (디지털융합 교육원서울지회)
유지은 (떡따구리)	김명환 (수상한협동조합)	박정음 (서울환경연합)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김성연 (장애인차별 금지추진연대)
	이풍현 (니트생활자)	엄민경 (알맹상점)	서선영 (소소도시)	정소민 (세상은요지경)
	전성신 (니트생활자)	이은수 (노원도시농업 네트워크)	양한석 (건강싶은도시 만들기시민연대)	조경숙 (테크-페미 활동가)
	정은희 (두두협동조합)	허승은 (녹색연합)	이영선 (아차산마을 안전한통학로 주민모임)	

3. 담당자의 한 마디

“공동협력추진단의 구성 과정은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 같이 어려운 느낌이었습니다. 좋은 단체들은 많지만 여러 일정상 함께하기 어려운 분들도 많았고, 의제의 방향성과 활동 분야가 맞지 않아 함께하기 어려운 분들도 있었습니다. 기존에 오랫동안 활동하던 활동가와 새롭고 참신한 활동가, 비영리그룹 뿐만 아니라 영리그룹까지. 기존 활동가들이 만들어놓은 기초 위에 새로운 시선, 새로운 활동과의 접목을 시키는 일이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21명의 어벤져스같은 공동협력추진위원들과 함께 기존에 없던 새로운 공론장을 함께 만들어 갈 일이 기대되었습니다.”



05 공동협력추진단 워크숍

함께 모이니 이렇게 좋을 수가!

요약

- 1. 일시** : 2023년 8월 10일(목), 10:00~16:00
- 2. 장소** : 노무현시민센터 1층 다모여 강의실
- 3. 목적**
 - 2023 시민공익활동지원 플랫폼 사업의 전체 일정 안내 및 공동협력추진단의 역할 소개
 - 의제별 공론장 및 시민공론장의 목표, 방향성, 형식, 프로그램, 결과물 활용 방안 등의 세부 기획 논의
 - 5개 의제별 공동협력추진위원 간 정보 공유 및 네트워킹을 통한 협력체계 구축
- 4. 참석 대상** : 공동협력추진단

바퀴보기 ⑥

공동협력추진단 워크숍

1. 워크숍 과정



2. 결과

■ 추진단의 구성

아동권	외로움	순환경제	보행권	디지털약자
놀이문화 부족	1인가구	물 순환	정책에서의 후순위	디지털 약자라는 용어의 범주
돌봄 부족	비교, 차별	의류폐기물		키오스크
아동권에 대한 인식 부족	SNS 중독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플라스틱	자동차 중심의 도시 설계	디지털 격차
양육의 양극화		현수막		용어의 어려움

■ 의제공론장 논의 주제 탐색

아동권	외로움	순환경제	보행권	디지털약자
공동육아 아동의 생활권	고립과 외로움 외로움 예방 방안	의제별 미니테이블 구성 (의류순환, 유리병 재사용, 일회용품 보증금제, 수리권, 물순환)	보행권 활동가들의 네트워킹의 장 보행권 정책 확대	디지털 약자 당사자의 어려움 토로 왜 디지털약자라고 생각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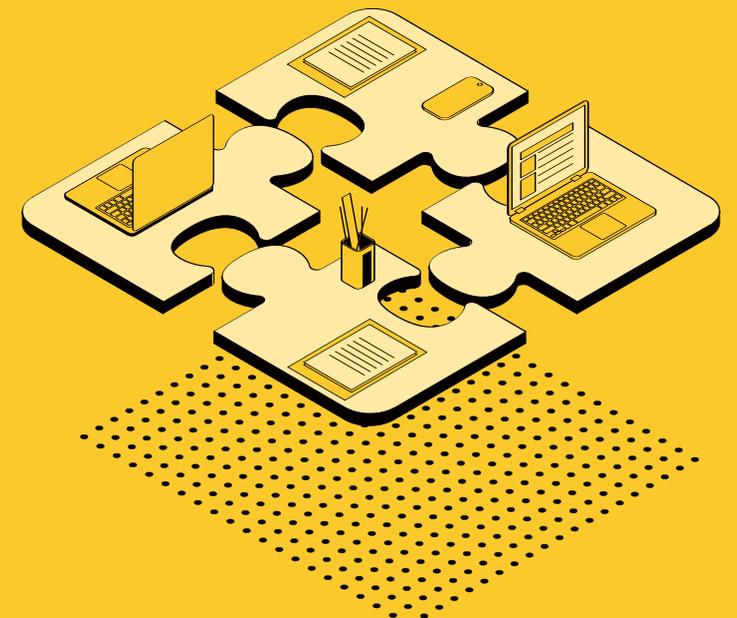
■ 의제공론장 참여대상군 설정

아동권	외로움	순환경제	보행권	디지털약자
양육 및 돌봄 당사자	행정		관련단체 활동가	
청소년	지원조직 전문가	활동가	공공디자이너	당사자성을 가진 참여자
다양한 계층의 양육자	외로움 당사자성을 가진 참여자	관심자	행정 관심자	
동네 상인들				

3. 담당자의 한 마디

“공동협력추진단을 구성하기까지의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공동협력추진단 워크숍을 진행할 때까지도 완전히 구성이 된 상태는 아니었기에 15명 정도의 인원을 모시고 진행하게 되었지만 5개 의제를 주제로 한 공론장의 세부 모습이 조금씩 그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공동협력추진위원회에도 워크숍을 통해 시민공익활동지원 플랫폼 사업에 대한 이해와 본인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부분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공론장 기획 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첫번째 워크숍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자’ 발적으로 실행하기



01 공론장 만들기

공동협력추진단과 함께

요약

- 1. 기획 회의 일정** : 5개 의제별 2회씩, 총 10회
 - 1차: 의제공론장 주요 의제 및 참여 대상 확정
 - 2차: 의제공론장 추진 계획 마련 및 발표자 확정
- 2. 협력** : (주)회의설계소
- 3. 기간** : 8월 ~ 9월

자발적으로 실행하기 ①

공동협력추진단 기획 회의

1. 운영 주체별 공론장 기획 과정

센터	공동협력추진단	(주)회의설계소
공동협력추진위원 간 일정 조율, 공론장 장소 섭외	기획 회의 참여: 문제 현황 공유, 의견 나눔 등	기획 회의 진행
회의 종료 후 결과보고서 작성		
공론장 홍보물 제작 및 홍보 시작	참여 대상자 설정, 논의 주제 및 발표자 확정	공론장 전체 진행 순서 설계, 자료 제작

2. 결과

- 의제공론장의 진행 방식 및 주제 확정
- 참여자 모집

3. 담당자의 한 마디

“담당자 2명이 각각 맡은 의제별 모든 기획 회의에 참여했습니다. 8월 중순에 첫 기획회의를 시작해 9월 7일 시작될 아동권 의제공론장을 기획하기까지 시간이 촉박해서 일정을 조율하고 맞추는 부분에 집중했고 공동협력추진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16	2023년 8월, 수	● 오후 6:30~ 9시	[미경/일영] 공동협력추진단 외로움 의제 기획회의(1) 회의실3
21	2023년 8월, 월	● 오후 6시~ 8:30	[미경/일영] 공동협력추진단 <아동권> 의제 기획회의(1)
22	2023년 8월, 화	● 오후 2시~ 3:30	[일영] 공동협력추진단 디지털약자 기획회의(1) 회의실4
23	2023년 8월, 수	● 오후 6:30~ 8시	[(중)예지] 공동협력추진단 외로움 의제 기획회의(2) 회의실3
24	2023년 8월, 목	● 오후 3시~ 5시 ● 오후 8시~ 10시	[센터장/예지] 보행권 공동협력추진단 기획회의(1) 회의실 2 [중/미경] 공동협력추진단 <아동권> 의제 기획회의(2)
31	2023년 8월, 목	● 오후 4시~ 6시	[예지/회의실계소] 공동협력추진단 순환경제 의제 기획 회의[1] 회의실3
5	2023년 9월, 화	● 오후 3시~ 5시	[예지/회의실계소] 보행권 공동협력추진단 기획회의(2) 회의실 3
6	2023년 9월, 수	● 오전 10시~오후 12시 ● 오후 8시~ 10시	[일영/회의실계소] 공동협력추진단 디지털약자 기획회의(2) 회의실3 [중/예지/회의실계소] 공동협력추진단 순환경제 의제 기획 회의[2]

02 의제공론장 실행

요약

- 1. 사업명** : 2023 시민공익활동지원 플랫폼 의제공론장
- 2. 추진기간** : 2023년 9월 7일(목) ~ 10월 12일(목) 의제별 1회, 총 5회 진행
- 3. 추진 목적**
 - 의제 관련 정보 제공 및 인식 확대
 - 의제별 주요 문제 의식 공유 및 해결 방향 탐색

구분	아동권	외로움	순환경제	보행권	디지털 약자
대상	서울에서 거주 혹은 활동하고 있는 의제별 관심자 20~60명				
일시	9/7(목)	9/14(목)	9/21(목)	10/5(목)	10/12(목)
장소	신촌역 히브루스 본점			노무현시민센터 1층 다모여 강의실	
내용	의제별 문제의식 공유 및 해결방향 탐색				

담당자의 한걸음

- 문자 통역사 배치(의제공론장, 시민공론장) / 수어통역사 배치(시민공론장)
- 보행 약자도 함께할 수 있는 공간에서 운영 (휠체어 경사로 및 엘리베이터 등 이동 접근성 고려)
- 생분해 홍보물 제작(현수막, 배너, 백월 등)
- 세심한 배경 음악(공론장의 환경과 분위기를 책임지는 플레이리스트 선정)
- 먹는 것이 중요하다! (매번 맛있고, 풍성한 간식 제공, 비건을 위한 간식 제공)

03 아동권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함께 해야 할 사람과 환경을 중심으로”

요약

1. 일시 : 2023년 9월 7일(목), 19:00~21:00
2. 장소 : 히브루스 본점
3. 주제 : 사회적 육아
4. 참석인원 : 총 23명 (참여자 및 스태프 포함)
5. 만족도 조사 결과 : 4.4점 (5점 척도)

자발적으로 실행하기 ②

아동권 의제공론장

1. 논의 주제

- 발표 : 사회적 육아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전주리)
- 사회적 육아를 어렵게 하는 요인 (사람/공간)
- 어떻게 사회적 육아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사람/공간)

2. 주요 내용

사회적 육아를 어렵게 하는 것들	해결방안
무한경쟁과 신자유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 환경 및 교육 환경 개선 - 기본소득 등 사회적 안전장치로 경쟁에 목매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정책적 대안들 - 경쟁/계급적 입시문화 개선

사회적 육아를 어렵게 하는 것들	해결방안
사회적 단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다양한 돌봄 커뮤니티를 조직 - 청/장년층의 사회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아동 간 사회적 육아에 대한 협의 가능 - 나부터 마음 열기 -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교류 확대
아동들을 위한 공간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아동복지 시설의 문턱을 낮추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학교 운동장, 아파트 놀이터, 공원 등 많은 공공장소의 개방 - 운동장에 청원경찰(돌봄 인력)을 배치해 개방 - 서울시 생활권 계획에 아동 고려
아동에 대한 이해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에 대한 보편적 교육이 필요함(대상화가 아닌 주체로서 존중의 감각을 기를 방법 찾기) - 아동이 참여할 수 있는 장 만들기 - 소통과 대화, 인사하기 - 아동이 현장에서 도전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적극 확대 - 출산 후 최소한의 부모교육 시행 혹은 매뉴얼 배포 - 육아휴직 확대, 육아기 주4일제 도입
가부장제	

3. 담당자의 한 마디

“아동권 공론장은 특히나 아동을 양육하는 당사자들이 대상이 되는 공론장이었기 때문에 시간대와 환경을 고려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동이 같이 와도 안전하고 즐거운 공론장이 될 수 있도록 돌봄 교사를 섭외하였고, 아동용 놀이 용품도 함께 구매하였습니다. 한쪽 편에 아동 놀이 공간을 만들어 양육자들은 공론장에서 편히 대화하고, 아동들은 돌봄 선생님과 함께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기획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동과 함께해주시기로 했던 분들이 오지 않아 실제 현장에서 함께할 수 없어 아쉬웠지만 행사를 기획할 때 한번 더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할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근두근 첫 공론장! 참여하시는 분들을 기다리며 철각



04 외로움

“누구나 한번쯤은 외로움을 겪어본 적이 있지 않나요?”

요약

- 1. 일시 : 2023년 9월 14일(목), 19:00~21:00
- 2. 장소 : 히브루스 본점
- 3. 주제 : 사회적 방임
- 4. 참석인원 : 총 67명 (참여자 및 스태프 포함)
- 5. 만족도 조사 결과 : 4.3점 (5점 척도)

자발적으로 실행하기 ③ 외로움 의제공론장

1. 논의 주제

- 발표(1) : 외로움의 시대, 문화공동체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수상한협동조합 조영진)
- 발표(2) : 무업기간의 관계망이 고립에 미친 영향-니트컴퍼니 사례를 중심으로 (니트생활자 박은미)
- 외로움과 고립의 차이는 무엇일까?
- 고립상태로 가기 전까지의 어떤 부정적 신호들이 있을까?
- 고립으로 가기 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2. 주요 내용

고립상태로 가는 부정적 신호들	예방할 수 있는 방안
우울, 불안, 피해망상, 낙담, 무기력, 좌절, 중독 피로감, 건강 악화와 같은 공통 키워드 중심	편하게 속마음을 꺼낼 수 있는 공간, 정책과 지원에 대한 정보 교육, 증빙을 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함, 연령대 별 외로움을 살펴야 함, 본인의 자량을 자제하는 문화를 만들어보는 것(SNS 내 보여주기 식 문화의 개선)

3. 담당자의 한 마디

“외로움 공론장은 예상 인원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사전 신청을 해주었고, 현장 참여인원도 많았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외로운 사회구상을 느끼는 시간이기도 했어요. 이렇게 외로운 사회를 만든 구조적인 원인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연대, 함께하는 마음, 서로를 돌보는 마음으로 연결되어있다는 것을 느끼는 공론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05 순환경제

“버리지 않고 어떻게 순환시킬 수 있을까요?”

요약

- 1. 일시** : 2023년 9월 21일(목), 19:00~21:00
- 2. 장소** : 히브루스 본점
- 3. 주제** : 자원순환의 5가지 이야기
1) 의류순환, 2) 유리병 재사용, 3) 수리권, 4) 물순환, 5) 일회용컵 보증금제
- 4. 참석인원** : 총 49명 (참여자 및 스태프 포함)
- 5. 만족도 조사 결과** : 4.4점 (5점 척도)

자발적으로 실행하기 ④

순환경제 의제공론장

1. 논의 주제

① 의류 순환 (섬유 재활용, 새활용 등)	- 사놓고 입지 않는 옷을 어떻게 순환할 수 있을까? - 오래 입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수선문화) - 기업에서 버리는 옷들을 올바르게 처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② 유리병 재사용	- 유리병 재사용이 필요한 이유 / 관련 현황 공유 - 유리병 재사용을 위해 어떤 목소리가 필요할까?
③ 수리권	- 일상에서 수리할 수 있는 인프라를 어떻게 제공 받을 수 있을까? - 공간, 장비, 사람 등을 어떻게 연결하고,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까?

④ 물순환	- 기후 변화에서의 물 모이, 물 순환의 중요성 안내 - 캠페인/정책을 어떻게 확산할 수 있을까?
⑤ 일회용컵 보증금제	정책 개요 안내 정책 변화 흐름 진단 선도지역(제주와 세종)의 이행 결과 정책적 한계 및 어려움 공유

2. 주요 내용

세부 의제	질문	논의 결과
의류 순환	- 옷을 사놓고 왜 입지 않을까?	- 총동 구매 - 더 이상 나를 표현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여겨져서
	- 어떻게 순환시킬 수 있을까?	- 기부 또는 나눔 - 패션산업이 미치는 환경 파괴의 영향 등 학생들에게 인지시키기 - 똑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생각해보기 - 인지 문화, 정보공유 - 수선
	- 오래 입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 공공 행사 시 의류 제작 억제 - 의류 순환을 위한 MD규레이션 - 우리 동네 공유 옷장 - 현수막을 버려지는 직물로 제작 - 의류 수거함(네프론 기계) 포인트 리워드 - 서울시 차원의 의류 분리배출 안내문 제작
유리병 재사용	- 시민들이 유리병을 재사용하는데 걸림돌이 있다면?	- 불편함 및 고비용(생산)에 따른 기피 현상 심화 - 재사용, 재활용의 개념 인식 부재 - 분리수거 세분화가 되어 있지 않음 - 유리병 재사용 목표 설정 : EM 10% 의무화 등 규제 필요 - 제도 도입 관점의 차이 : 환경 문제보다 경제적 이익 관점에서 정책 진행 - 유리병 재사용 기업 부재 : 빈용기 보증금 참여 주류업체만 유리병 재사용

세부 의제	질문	논의 결과
유리병 재사용	- 시민들이 유리병 재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p><인식 전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리병 재사용의 환경적 의미 캠페인 -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인식 전환 및 교육 확대 - 제도적, 정책적 방향 수립 및 경제성에 입각한 소비 패턴의 가치 구매 방향으로 전환 <p><인프라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병 회수 거점 확대 - 가볍고 내구성 강한 유리병 제작 - 소형 세척장비 생산 - 소량 규격화 및 고급화 <p><규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회용 포장재 규제 강화 및 다회용 포장재에 대한 인센티브 - 빈용기 보증금제의 적용 대상 및 참여 기업 확대 - 플라스틱세 및 탄소세 상향 부과
수리권	- 사람들은 왜 수리하는 것보다 버리는 선택을 할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번거로움 : 새 물건을 구매하는 것은 너무 쉽고 빠르지만, 수리를 받기 위해 비용을 알아보고, a/s센터를 찾아가고, 수리 과정을 기다리고, 재고 등의 이유로 실패할 경우까지 감수해야 함 - 수리에 필요한 정보와 능력 부족 : 찾기 힘든 편이므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 신제품을 갖고 싶은 개인의 욕망 : 수리하는데 발생하는 비용, 시간보다 새로 구매하는 것이 편리함 - 저품질 대량생산 : 수리 후 다시 고장 날 정도의 내구성 낮은 품질의 물건이 대량 생산됨
	- 사람들이 물건을 수리해서 사용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래쓰는 문화 의식 : 수리 문화 형성, 고품질 물건 생산, 고쳐서 다시 사용할 때 느끼는 뿌듯함 및 공감의 확산, 없는 것에 익숙한 사회적 성숙도 향상, 물건에 애착이 생기도록 서사 부여, 수리 경험 확대 - 수리 서비스 이용시 할인 적용 - 물건 구매 시 수리에 대한 친절한 안내 - 수리가 가능한 거점장소 안내
	- 수리권을 보장/확대하기 위해 어떤 인프라가 더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프라 관련 공모: 아이디어 공모전, 교육 등 - 수리 및 수선 지원금 제도 운영 - 제도적 노력 : 수리 공간 운영 및 수리 전문가 양성, 수리 등급 제도 운영, a/s 의무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법 제정 - 중고 매매 플랫폼 운영 및 구독 경제 활용 - 수리에 대한 종합적 홍보 : 주민센터 수리장비 대여, 수리맵 운영

세부 의제	질문	논의 결과
물순환	- 성공적인 물순환 활동 확산에 걸림돌이 있다면?	<p><인식 전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빗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 - 물순환 위기 불감증 - 편리함을 위한 과소비 - 지구의 물 부족에 대한 생각을 할 때가 많지 않음 <p><경제적 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수익성이 높지 않음 - 저렴한 수돗물 값과 높은 수도 보급률로 필요성 부족 - 물 차원 정책 부재 - 물순환의 가치가 측정된 적이 없음
	- 성공적인 물순환 확산이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빗물 이용 : 물이 귀해서 궁궐 소방수를 모았던 '드므'처럼 빗물 이용 및 대비 - 물 재활용 : 마당 또는 옥상 등에 고인 빗물이 정화되며 천천히 흘러가게 하는 빗물정원 같이 효율적으로 재활용하기 - 인식 개선
	- 성공적인 물순환 확산은 왜 필요할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위기 완화 : 산불방지 효과, 지하수 보충, 식생 개선 - 제한된 자원 : 물 부족 상황을 위해 낭비하지 않아야 함 - 환경이 곧 지구살리기 이므로 인류와 삶에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음
일회용컵 보증금제	- 성공적인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이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식개선 운동 - 물순환 관련 장소 견학 프로그램 운영 -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도록 물모이 만들기, 물그릇 통장, 보드게임, 둔덕 등의 캠페인 및 프로젝트 등의 시민 운동 제안
	- 보증금제 시행에 걸림돌이 있다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되는 모든 일회용컵에 누락없이 보증금이 붙고, 누락없이 회수되고, 누락없이 재활용 되는 것 - 기업 등 사업자의 수용과 소비자의 반납, 다회용 및 재활용의 결과로 확산 - 텀블러를 소지하는 습관 - 방향성 확립 : 화장품 및 핫반 용기, 우유팩 등의 자원 순환 문제 해결 과정에서의 방향성 중 하나 - 기업, 소비자, 정부의 외면 - 손바닥 뒤집기 : 정부는 다양한 시민들의 생각,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최선의 정책을 시행해야 하지만 잦은 번복으로 인한 제도의 신뢰성 하락, 정부의 정책 이행의지 부족 - 정책 보편화의 실효성 : 지역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시행

세부 의제	질문	논의 결과
일회용품 보증금제	- 보증금제 시행, 어떤 노력을 해볼 수 있을까?	- 자발적 보고자 : 긍정적 가치를 전파시키기 - 가치 확산 : 관심자가 주변에 널리 알리고 확산될 수 있도록 독려하기 - 호기심 및 관심 유도 : 끊임없는 관심을 갖고 관련 홍보물 등을 발견하면 관심이 없는 주변인에게 호기심을 유도하기

3. 담당자의 한 걸음

“순환경제 공론장은 5개의 세부 의제별로 나뉘어 공론장 속 미니 공론장의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순환경제라는 하나의 큰 주제로 공론장을 진행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고 개념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에 다시 세부 의제를 5개로 나누게 되었구요. 세부 의제별 관심자들로 구성되어 진행했는데 순환경제에 대한 개념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는 좋았지만, 장소의 한정적인 특성 상 각 테이블 별 논의에 집중하기 어려웠던 점, 골고루 배치하다보니 2순위로 작성한 주제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의 만족도가 아쉬웠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매 공론자마다 센터와 사업 소개를 해주었던 미령 매니저 :D



06 보행권

“걷는 사람들이 도시의 일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요약

1. 일시 : 2023년 10월 5일(목), 19:00~21:00
2. 장소 : 노무현시민센터 1층 <다모여 강의실>
3. 주제 : 그래도 걷는 사람
4. 참석인원 : 총 33명 (참여자 및 스태프 포함)
5. 만족도 조사 결과 : 4.6점 (5점 척도)

자발적으로 실행하기 ⑤

보행권 의제공론장

1. 논의 주제

- 발표 (1) : 조금 더 걷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소소도시 이야기 (서선영, 소소도시 대표이사)
- 발표 (2) : 어린이 생활 세계로 보는 보행로 안전 (배성호, 송중초등학교 교사)
- 보행권 활동 소개 / 어려움
- 보행권이 침해되었다고 느끼는 순간
- 보행권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
- 보행권이 지켜지는 서울을 위해 해볼 수 있는 제안

2. 주요 내용

주제	내용
1. 보행권 활동 소개 / 어려움	- 마을의 아동들을 위한 통학로, 불법 주차, 산책로 등을 개선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 보행권 운동을 전개한다는 시간이 꽤 오래 지났지만 크게 이슈화가 되지 않는 어려움
2-1. 보행권이 침해되었다고 느끼는 순간	도로변 주차장, 전동킥보드&자전거 등의 교통수단, 거리 벤치 부재, 인도의 부재, 불법 주정차, 차량위주로 만들어진 법과 제도 등

주제	내용
2-2. 보행권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	보행자 우선의 문화, 주차시스템 및 문화 개선, 자전거 도로 확충, 안전 속도 준수, 점자 도로 확충, 도로 위 횡단선 개설, 벤치 설치 등
3. 보행권이 지켜지는 서울을 위해 해볼 수 있는 제안	차없는 거리 만들기, 끊긴 보도 연결, 거주자 우선 주차 폐지, 불법주차 단속 강화, 모두의 길 캠페인, 점심먹고 산책하기 캠페인, 보행투어 상품 개발, 노상주차장 축소 등

3. 담당자의 한 걸음

“보행권 공론장은 이동권에 대한 논의도 포함되어 있는 공론장이었기에 장소를 섭외할 때 보행 약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이동이 쉽고,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매 공론장을 기획할 때마다 접근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다양한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섬세한 기획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시간이었고, 장소를 섭외하면서 이제는 모든 장소가 장애인/비장애인, 이동약자들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설계가 표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보행권 공론장을 기획했을 때 논의 내용에 대한 고민이 많았었는데요.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발견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공론장팀과 늘 함께했던 캐리어와 그 캐리어를 늘 챙겨 주셨던 센터장님의 뒷모습 :)



07 디지털약자

“디지털약자, 이게 내 잘못이야?”

요약

1. 일시 : 2023년 10월 12일(목), 19:00~21:00
2. 장소 : 노무현시민센터 1층 <다모여 강의실>
3. 주제 : 모두의 문제
4. 참석인원 : 총 33명 (참여자 및 스태프 포함)
5. 만족도 조사 결과 : 4.5점 (5점 척도)

자발적으로 실행하기 ⑥

디지털약자 의제공론장

1. 논의 주제

- 발표 : 우리는 모두 디지털 강·약·중간·약자 문제는 디지털 공공성 (정소민, (주)세상은요지경 대표)
- 미니게임 ‘모두가 디지털약자일 수 있다.’ 진행
- 나/사람들이 디지털 관련 불편함을 겪었던 순간
- 불편함을 겪었을 때 어떻게 했나요?
- 사회적 지원 방안 탐색

2. 주요 내용

주제	내용
1. 나/사람들이 디지털 관련 어려움, 불편함을 겪었던 순간	키오스크, 사이렌오더, 공인인증서, 인터넷 결제, 코레일 기차예매, 온라인 교통카드 시스템, 광고/푸쉬알림 과다, 정기결제 구독 해지
2. 불편함을 겪었을 때 어떻게 했나요?	자녀 또는 다른 사람에게 물어봄,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알아봄, 사용 포기

주제	내용
3. 사회적 지원 방안 탐색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 설치, 가입 해지 탈퇴 등에 대한 매뉴얼을 홈페이지 상단에 게시, 명료한 단어 사용, 어플 내 선택지 축소, 절차의 간소화, 그 때 그때 물어보고 답변해 줄 수 있는 ARS 전화 서비스 개발, 중간광고 제거 용이

3. 담당자의 한 걸음

“디지털약자라는 단어가 주는 ‘약자’에 대한 인식보다는 보편적인 디지털 공공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공론장이었습니다. 기획단계부터 그런 부분을 염두했고, 기조 발표도 디지털 공공성을 중심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의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다른 공론장과는 다르게 미니게임도 구성해보았습니다. 저희의 이러한 의도가 잘 전달이 되었을까요?”



08 시민공론장 실행

“내가 느끼는 00문제, 공익활동으로 풀어볼 수 있을까?”

요약

1. 일시 : 2023년 11월 11일(토), 14:00~17:00
2. 장소 :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
3. 주제 : 내가 느끼는 00문제, 공익활동으로 풀어볼 수 있을까?
4. 참석인원 : 55명
5. 만족도 조사 결과 : 4.67점 (5점 척도)

자발적으로 실행하기 ⑦ 시민공론장

1. 논의 주제

- 나에게 1억이 주어진다면, 어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보고 싶으신가요?
-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의 서울의 모습을 한문장으로 만들어보기(투표)

2. 주요 내용

주제	내용
1. 나에게 1억이 주어진다면, 어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보고 싶으신가요?	저탄소 도시 서울, 사회 안전망, 스포츠 아동폭력, 공공도서관 활성화, 역사도시 서울, 디지털약자가 없는 서울, 장애인 지원, 환경 문제, 주거 문제, 지역 자치, 사회적 고립, 공공 공간 접근성 및 활성화, 예술인 생존권, 청소년 일상교육, 고립 은둔 청/중장년 문제, 관계망 부족, 공익활동가 소진 예방, 노인 문제, 청소년 문제, 이동권, 치안, 수리권 등

주제	내용
2.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고립 문제 : 커뮤니티 모임 만들기,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열기, 커뮤니티 공간을 개설하기 등 - 환경 문제 : 텀블러스테이션 설치, 정책제안활동 참여, 캠페인 활동 참여 등 - 이동권 문제 : 따릉이 신고관리 커뮤니티, 위험한 공간의 차 한 대 빼기 캠페인, 안전한 보행길 만들기를 위한 길거리 모니터링 등 - 장애인, 디지털약자 등의 문제 : 계단정복지도 정보등록 어플 만들기, 팩트체크AI&디지털리터러시 증진 활동, 신원인증 플랫폼 등 - 기타 : 주거세입자 문제 해결을 위한 커뮤니티, 정보 모임, 역사 문화 도시 서울을 위한 고대 문자 활용, 여가활동 등
3. 사회적 지원 방안 탐색	<p>배리어 프리 키오스크 설치, 가입 해지 탈퇴 등에 대한 메뉴얼을 홈페이지 상단에 게시, 명료한 단어 사용, 어플 내 선택지 축소, 절차의 간소화, 그때 그때 물어 보고 답변해줄 수 있는 ARS 전화 서비스 개발, 중간광고 제거 용이</p>

3. 담당자의 한 걸음

“시민공론장을 기획하며 우리가 선정했던 5개 세부 의제 외에 더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장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시민공론장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향후 공익활동의 다양한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의제공론장과 시민공론장 사이의 촉박함으로 인해 홍보 시간도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세부 주제 논의를 기대했던 사람들에게는 시민공론장의 주제가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한 토요일의 종료라는 시간과 공간이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일 수 있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많이 오면 많이 오는대로 다양한 논의가 있어서 좋고, 적게 오면 적게 오는대로 깊이있게 공론장을 진행할 수 있겠다는 담당자들의 긍정적인 마음과 함께 공론장을 준비했고,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충분히 깊이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함께 인사하는 서울”이라는 문장이 선호도 투표 1위를 했는데, 그만큼 외로움과 관계, 연결에 대한 의제는 요즘의 한국 사회에 가장 중요한 화두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공론장에 오신 분들을 위해 포토존도 마련하고, 풍성한 간식과, 시민실천용품인 친환경 샤워바까지 나눠드리니 이미 공익활동을 실천하는 걸음들이 모인 뜻깊은 장이었습니다.”



09 온라인 플랫폼 운영 공익활동 바.자.회.

요약

1. 온라인 플랫폼명

공익활동 바.자.회. “공익활동을 ‘바’ 꿰보고, ‘자’발적으로 실행해보고, ‘회’고한다.”

2. 목적

- 시민공익활동의 참여와 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방식으로서의 공론장 운영
- 오프라인 공론장의 확장 방안 모색 : 시민들의 자유롭게 다양한 의견 청취, 공익활동 아이디어 발굴
- 시민공익활동지원 플랫폼 사업의 시민 참여 아카이브 활용 : 오프라인 공론장의 과정 기록, 결과물 아카이브

3. 협력 :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4. 운영 기간 : 8월~12월

5. 총 게시물 수 : 32건

6. 총 조회수 : 16,369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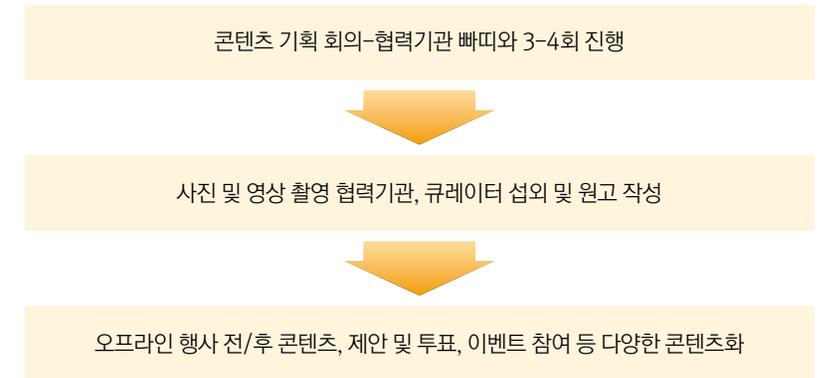
7. 총 접속자 수 : 8,673명

자발적으로 실행하기 ⑧ 온라인 플랫폼

1. 구성

소개	공익활동 바자회 플랫폼 안내, 2023년 시민공익활동지원 플랫폼 5개 의제 소개
제안하기	사업에 기대하는 바, 참여 소감, 정책제안서 작성 워크숍을 통해 마련된 시민들의 정책제안서 등
투표하기	5개 의제 공론장 중 가장 기대되는 주제에 대한 사전 투표, 시민들의 정책제안서 중 가장 공감되는 제안에 대한 선호도 투표 등
소식	사업 홍보 및 공지사항, 공론장 후기, 이벤트 공지 등
자료실	결과보고 자료집, 활동 자료집 등

2. 운영 과정 및 결과



3. 담당자의 한 걸음

“참여자들이 직접 모여 교류하는 오프라인의 장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한계를 넘어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프라인 공론장을 운영하기 전과 후에 의견을 제안하거나 투표할 수 있는 콘텐츠를 기획하고, 오프라인 공론장 또는 공론장의 일환으로 진행된 사업 소식을 알렸습니다. 공론장을 운영할 때는 사진 및 영상 촬영하는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미디어를, 큐레이터 섭외를 통한 의견이나 결과물 등을 글로 기록하는 작업을 통해 아카이브 기능으로도 활용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후기 글은 시의성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협력 해주신 분들께 최대한 빠르게 공유해달라고 요청 드린 기억이 납니다. (기한 내에 빠르게 공유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한 만큼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하면서 어떻게 하면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까? 매번 고민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혹은 웹페이지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공익활동 바.자.회. 온라인 플랫폼도 한번 둘러봐주세요!”



10 후속 모임 운영

정책제안서 작성 워크숍

요약

1. 일시 : 2023년 11월 2일(목)
2. 장소 :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회의실 1
3. 협력 : (주)회의설계소
4. 참석인원 : 총 9명 (참여자 및 스태프 포함)
5. 총 정책 제안 수 : 5건

자발적으로 실행하기 ⑩

정책제안서 작성 워크숍

1. 기획 의도

- 공론장 의제 혹은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들과 정책제안서 작성 후속 모임 진행
- 문제의식 정리 및 구체화를 통한 서울시 정책제안, 공익활동 연계 및 공공캠페인 전개
- <공익활동 바.자.회.> 온라인 플랫폼 제안하기를 통한 오프라인 공론장의 확장

2. 운영 과정 및 결과



3. 담당자의 한 걸음

“공론장의 논의로만 끝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했던 정책제안서 워크숍. 1회의 워크숍으로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실제 제출할 수 있는 내용과 방식의 정책제안서까지 완성하는 데에는 우리가 있었지만 정책 제안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실제로 하나의 정책제안서를 만들어보는 경험 자체가 참여자들에게 의미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작성한 정책제안서를 직접 업로드 하고, 투표를 진행해 시민들의 선호도와 경향성을 파악했다는 부분이 정책을 제안하는 사람들에게도 효능감을 가져다 줄 수 있었습니다.”



11

캠페인 운영

의제공론장 결과물 전시회 “more better, together”

요약

- 1. 일시** : 2023년 11월 20일(월)~24일(금)
- 2. 장소** : 서울시 공익활동공간 삼각지 열린시민공간
- 3. 협업** : 신주옥 작가
- 4. 주제** : 우리는 더 잘 살고 싶다 - more better, together

자발적으로 실행하기 ⑩

캠페인 - 의제공론장 결과물 전시회 “more better, together”

1. 기획 의도(작가의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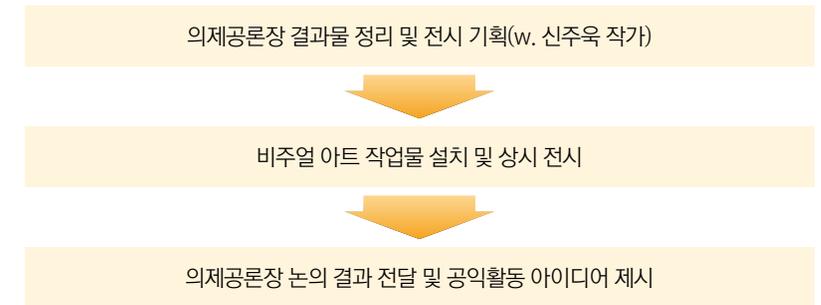
우리는 공동체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누구 하나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은 사람이 없이 어떤 가족의 형제자매이고, 부모자식이고, 친구이고 지인이며,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다.

우리는 모두 시작이 호모사피엔스로 태어났기에 공동의 삶의 시간에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권리가 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게 보면 모든 일들은 순리대로 잘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빠른 과정과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보이고 너무 앞질러가기에 정말 우리를 위한 기술과 사회가 맞을까 하는 의문에 휩싸이는 경우가 생기곤 한다.

나는 그런 각 문제들에 대해 이번 작업을 통해 크게 자각하고 ‘참고’하여 내가 가진 큰 저울의 무게에 그들을 달아볼 생각이다. 시대의 흐름이 옳은 것일까? 인간의 삶이 더 중요한 것일까? 그 평온의 상태에 대해 나는 지금 생각한다. 함께 발전하고 함께 누리며 잘 살아가는 방법.

어쩌면 모든 것은 시대에 따라 함께 나아가야 하는 필요충분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적절하고 완벽한 균형을 찾을 수는 없는 것일까?

2. 운영 과정 및 결과



3. 담당자의 한 걸음

“공론장의 논의 결과를 확산할 때에 조금 더 시민들에게 친숙하고 시각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고민의 결과 신주옥 작가와 협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공론장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가 나름의 해석을 더하여 ‘more better, together-우리는 함께 더 잘 살아가 수 있다’라는 주제의 비주얼 아트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공론장의 결과물을 다양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확산시켜보려는 노력이 담긴 기획이었는데, 더 많은 분들이 함께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2 캠페인 운영

메시지를 짚는다 / 빗물 시음회 / 청년 외로움 극복육

요약

1. 일시 : 2023년 11월 22일(수)~23일(목)
2. 장소 :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npo 라운지 및 회의실 1
3. 주제 : 의류 순환 / 물순환 / 외로움
4. 협업 : 기후위키 / 노원도시농업네트워크 / 니트생활자
5. 총 참석인원 : 총 8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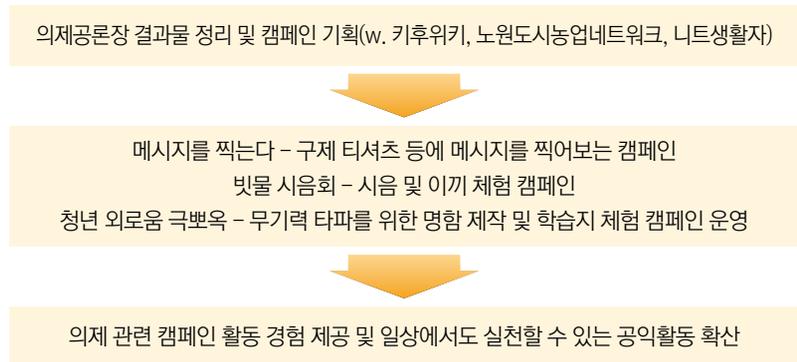
자발적으로 실행하기 ⑩

캠페인 -
메시지를 짚는다 /
빗물 시음회 /
청년 외로움 극복육

1. 기획 의도

- 2023 시민공익활동지원 플랫폼 공론장의 결과물을 반영한 공공 캠페인 활동 전개
- 5개 의제 및 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공론장 참여자 및 일반 시민들의 캠페인 참여를 통한 공익활동 인식 확산 및 경험 제공
- 순환경제 : 의류 순환, 물순환 및 외로움과 연계한 캠페인 활동을 통해 인식 개선 및 확산에 기여

2. 운영 과정 및 결과



3. 담당자의 한 걸음

“공론장에서 논의된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공익활동으로 이어지고, 개인 단위보다는 조금 더 큰 규모에서 경험해보는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센터의 공익활동 주간 '연결의 감각' 행사 내 세부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 시민공익활동지원 플랫폼 사업 참여자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의미있었습니다.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캠페인 형식으로 총 세가지 의제를 다뤘습니다! 의제가 생소한 분들에게는 신선한 경험으로, 새로운 공익활동 단체를 알게 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13 시민실천용품 제작

요약

- 1. 제작 기간 : 2023년 11월 20일(월)~12월 13일(수)
- 2. 홍보 기간 : 2023년 12월 1일(금)~12월 8일(금)
- 3. 배포 기간 : 2023년 12월 14일(목)~12월 15일(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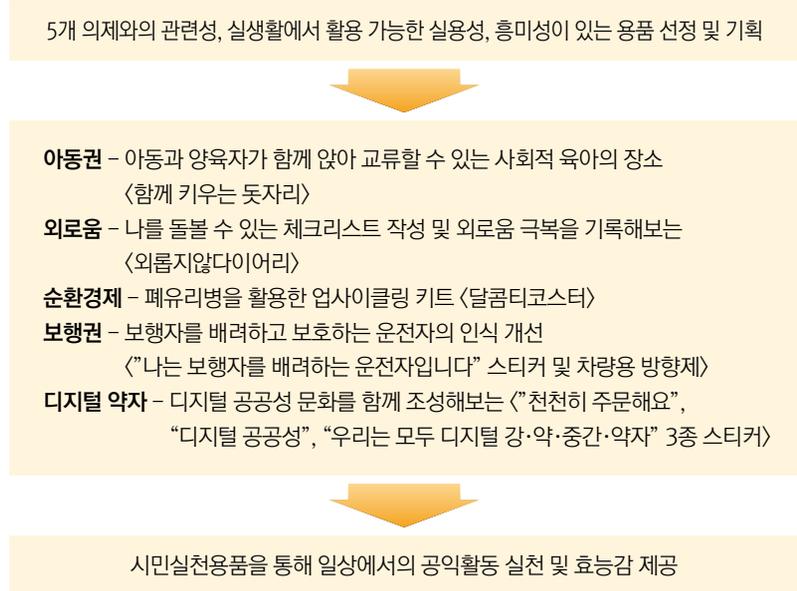
자발적으로 실행하기 ⑫

시민실천용품
제작

1. 기획 의도

- 5개 의제공론장의 논의 결과 확산 및 홍보
- 공론장의 논의를 넘어 일상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실천해볼 수 있는 실천 용품 제작
- 시민들에게 공익활동의 실행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사회변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효능감 제공

2. 운영 과정 및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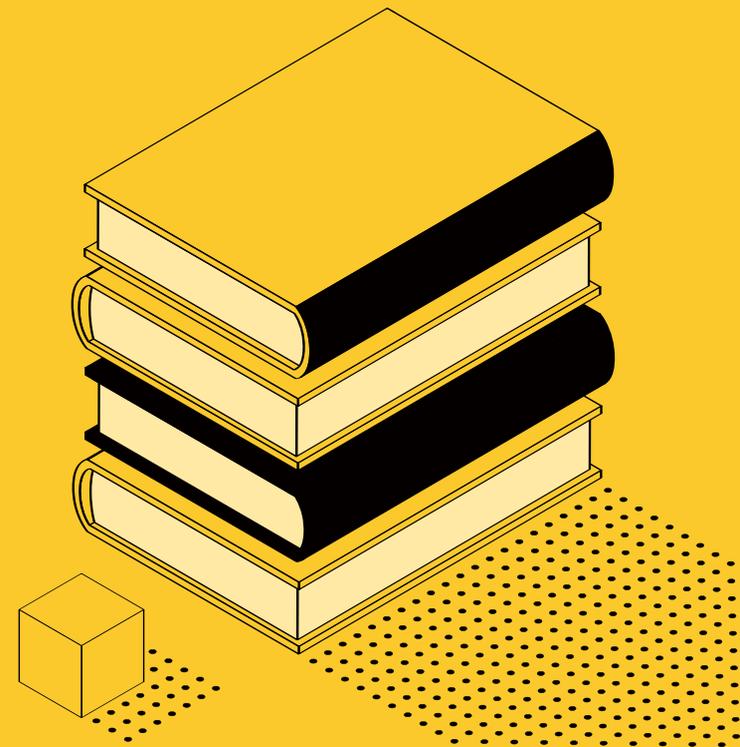


3. 담당자의 한 걸음

“공론장의 후속 활동 중 하나로 캠페인을 운영했었는데요. 여러 사정으로 다섯 개의 의제를 모두 다루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아 시민실천용품 5종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실천용품의 제작은 그 자체로 시민들이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 좋은 도구가 되길 바라는 생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캠페인을 통해 체험 위주의 공익활동을 경험해 보셨다면 시민실천용품을 통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일상에서 공익활동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회’고하기



01 공동협력추진위원 2인의 이야기

회고하기 ①

공론장에 함께하다

전주리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1. 좋았던 점

아동 돌봄에 관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아동권에 대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항상 설레는 일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보통의 공론장은 아이디어나 주제를 내고, 이와 관련한 관계자들이 이야기 나누는 1회성의 공론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민공익활동지원 플랫폼 사업의 공론장은 첫 의제를 선정하는 과정부터 전체 공론장을 기획하는 것, 공론장 이후 후속 모임인 정책 제안까지 전 과정에서 아동권에 대한 이슈를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게 해주어서 좋았습니다. 또한 아동권 외의 공론장의 다른 주제들도 색달랐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디지털소외나 보행권, 외로움 등의 주제는 코로나 이후 시의적절한 주제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개 의제 모두 흥미로웠고, 다른 주제였지만 함께 응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2. 아쉬웠던 점

아동권 의제는 현대 사회의 저출생 문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공론장에 더 많은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당사자인 양육자들이 함께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의제를 논의하고 공론장 기획 시 돌봄교사도 섭외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공론장의 실제 참여자는 대부분 양육 당사자보다 활동가들이 많이 참여하여 아쉬웠습니다. 19:00~21:00에 진행된 공론장의 시간에 양육자들이 참여하기엔 무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공론장이고 의미 있는 의제라고 할지라도 고립 육아에 지친 양육자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의제의 주제도 사회적 육아라는 말이 조금 낯설고 어려운 것 같아, 차라리 공동육아나 함께 키우는 문화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연령의 활동가들이 아동권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고, 의미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준비하고자 하던 단체들이 사정상 함께 하지 못한 것도 아쉬웠습니다. 아동권 의제 공동협력추진단에 더 다양한 단체가 함께 했다면 재미있고 풍성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3. 새롭게 깨닫게 된 것

공론장을 마치고 정책 제안까지 이어지면서 우리가 생각해 낸 문제들을 정책화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고민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단순히 문제제기를 하는 것과 정책제안까지를 고민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데, 앞으로 거버넌스로 활동할 때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말해야 할지 배우게 된 느낌입니다. 사실 아동권은 모든 다른 의제에 다 어느 정도 걸쳐 있는 의제라고 생각합니다. 보행권 영역에서도 아동의 보행권을 말할 수 있고 외로움도 고립육아를 말할 수 있고 순환경제나 기후활동에 가장 이해가 걸린 미래세대가 아동이기도 합니다. 디지털약자와 관해서도 사실상 디지털시민교육이나 디지털리터러시를 고민해야 하는 연령이 아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모든 분야에 취약한 존재가 아동인 듯 싶습니다. 이번 시민공익활동지원 플랫폼 사업을 통해 아동권라는 의제가 조금 더 널리 알려지고, 사람들이 이해하고, 정책 제안도 잘되면 좋을텐데하는 마음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향후 센터 사업도 기대해봅니다. 수고해주신 분들께 감사했습니다.

회고하기 ②

공론장에 함께하다

이영선

아차산마을
안전한통학로 주민모임

1. 공론장 사업 참여 동기(이유)

보행권 의제는 안전과 사고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늘 전투적인 논의였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 치열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안전한 통학로'라는 의제에 집중했던 동네에서의 활동과 고민을 통해 깨달은 것은 사실 '걷는다'는 것은 도시생활의 아주 기본적인 권리이자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치열함과 함께 도시의 공간들을 즐기고 경험할 수 있는 사회적 의미의 도시생활의 시작으로서 '걷기'를 다시 고민해보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집에서 밖으로 나가면 도시에서 걷는 사람이 되곤 합니다. 걷기는 사적영역에서 공적영역으로, 즉 공공성과 만나는 시작이기에 이 이야기에 꼭 함께 동참하고 싶었습니다.

2. 참여과정에서의 좋았던 점 / 아쉬웠던 점

코로나 이후 공론장이라는 자리가 많이 없어져서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이 늘 아쉬웠습니다. 매년 혼자서만 생각하던 주제를 이렇게 함께 만나서 이야기함으로써 서로가 서로에게 주는 새로운 시각과 응원들로 "아, 이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필요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센터에서 시민공익활동지원 플랫폼 사업을 위해 기획 회의부터 정책 제안서까지 세심하게 준비된 과정을 통해 내가 주목하고 있는 도시에서 걷는 사람, 그리고 각 사람들의 도시생활에 대해 다양한 시각으로 돌아볼 수 있어서 오랜만에 신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이야기를 시작한만큼 제한된 시간이 너무 아쉬워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기회가 생기겠죠?

3. 더 나은 공론장을 위한 제안

저는 사적인 "개인"이 공적인 "시민"이 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키워드를 하나 뽑으라고 하면 "참여"를 이야기합니다. 동네모임에, 지역문제에, 사회이슈에 참여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말하는 것이 시민이 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즐거운 자리에서 행복한 도시생활을 꿈꾸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때 개인도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공론장에서 참여자들이 제일 많이 한 이야기도 "더 이야기하고 싶다." 였습니다. 각 의제별 내용을 살펴보았으니, 다음번에는 소주제별로 깊게 공부하고 충분히 이야기함으로써 더 좋은 도시를 상상하는 자리들이 계속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4. 자유 소감

저의 보행권 운동의 처음 시작은 동네에서의 공공 공간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그렇게 보행권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던 중 동네에서 실제로 벌어진 통학로 사고로 인해 '안전한 통학로'에 대한 고민이 더해졌습니다. 활동을 지속하는 동안 때때마다 새로운 계기들이 생겨났고 그렇게 10년 동안 보행권 운동을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공동협력추진단 경험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며 새로운 관점과 계기로 걷는 사람들이 만드는, 걷는 사람들이 고민하는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공론장을 통해 도시에서 '걷기'는 어떤 의미였지를 다시 깨달은 만큼 새로운 마음으로 "걷는 시민들의 도시"에 대한 고민들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02 의제선정위원 1인의 이야기

회고하기 ③

공론장에
함께하다

젤리장
공공소통크리에이터

1. 의제선정위원부터 시민공론장 참여자까지

‘자전거 도로가 횡단보도 만큼 안전한 서울’은 우리가 테이블에서 함께 제안한 공론의제의 한문장입니다. 서울 살며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요 이동수단이 되었습니다. 자전거를 언제든 대여하여 저렴하고 쉽게 탈 수 있다는 편의성에 비해 자전거 도로는 얼마나 안전한가를 두고 대화했습니다. 잘 갖춰진 자전거 도로에는 주정차된 차량들, 버려진 쓰레기 더미, 불법 적치된 기물 등등 안전을 방해하는 요소도 곳곳에서 목격됩니다. 따릉이를 애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겪는 불편함입니다. 이는 불편함을 넘어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현상이기도합니다. 따릉이를 사랑하는 시민은 따릉이를 쉽고 편안하게 타는 것뿐만 아니라 더 안전하게 타고 싶습니다. 따릉이가 많은 서울시민의 발이 된 만큼 따릉이를 더 애정하고픈 시민들이 직접 안전을 위협하는 곳곳의 저해요소를 직접 발견하고 신고하거나 기록하고 공론하는 활동을 해보면 어떨까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적극적인 시민들의 활동으로 서울 구석구석 따릉이가 안전한 곳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릉이가 안전한 곳은 보행자도 안전할 수 있는 길일테니까요.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목적지까지 모든 보행과 자전거가 안전할 수 있는 서울.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2. 공론장 전반에 대하여

공론장은 다양한 형태로 구현되고 기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공론장이 지향하고 목표하는 명확한 방향이 참가시민에게 전달되어야합니다. 서울의 다양한 시민이 저마다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들고올 수 있는 열린자리만큼, 사전에 해당 공론장이 지향하는 목적과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한다면 정해진 공론장 시간 내 보다 건강한 대화가 오갈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공론화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이번 공론장의 의미를 해석한 시민이 있다면, 서로 어울리고 조율하며 대화하자는 행사에 부합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오가며 때로는 취합되고 추려지는 공론장의

특성 안에서 ‘누구도 자신의 말이 소외되지 않도록 느끼게 하는 장치’는 세심하게 고민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3. 소감 : 공론장은 ‘소통의 장’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진다.

이토록 일상적이고 다소 개인적인 불편함일 수 있는 이야기를 공론장 테이블 위에 올려 함께 대화하니 ‘의제’가 되었던 경험이었습니다. 서로의 의견이 오가며 개인의 일상은 이웃의 일상과 연결되었고, 자연스럽게 원하는 제안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웃으며 서로의 삶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 나아가 건강한 제안도 펼쳐보는 흥미로운 자리였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테이블의 이야기도 공유하며 서로의 생각이 온라인으로 실시간 반영되어 노출되었을 때 즐거웠습니다. 서울의 다양한 이웃 시민이 대화의 장에서 건강하게 소통할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03 자료집을 마치며

회고하기 ④

공론장
조금은 감이
잡혔다?!
공론장을
기획하는
당신에게
담당자들이
전하는
마지막 이야기

1. 어려움

참가자 관리 : 공론장은 현장 접수도 받았지만 매년 사전 신청을 통해 참가자를 모집했는데요. 사전에 신청해주신 분들 중 50%의 인원이 당일 노쇼였습니다. 참가자 분들도 나름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셨으리라 추측되지만, 인원예 맞춰 준비된 식사가 남았을 때 환경적인 측면에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오고 싶으셨던 분들이 참석하지 못한건 아닐까? 라는 마음과 한편으로는 매력적인 공론장을 기획하지 못한 담당자의 몫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매력적인 공론장을 기획함과 동시에 참가자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어려움이 숙제로 남은 것 같습니다.

후속 사업 운영 : 공론장을 통해 제안된 의견들이 휘발되지 않도록 공론장 이후에도 정책제안서 작성 워크숍, 결과물 전시회, 캠페인, 시민실천용품 출시 등 다양한 후속 사업이 진행되었는데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촉박한 시간 내에 집중적인 홍보와 프로그램의 완결성에 아쉬움을 남겼고,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쏟아지는 사업 안내에 피로도를 느낄 수도 있었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향후 공론장을 기획한다면 공론장을 잇는 후속모임을 '선택과 집중'하여 실제로 사회문제 해결과 시민참여에 효과적이고, 참여자들에게도 효능감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론장의 연속성 : 의제공론장 종료 후 공동협력추진단과 함께 달는 모임 겸 피드백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가장 많이 나왔던 의견 중 하나는 의제공론장 이후 시민공론장으로의 연결성이 부족하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공동협력추진위원들의 의견에 어느 정도 공감하며, 연결성의 측면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공론장 사업이 단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론장에서 나온 논의 결과들을 하나하나 사업으로 기획해보고 실행해보는 것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섬세한 기획과 많은 회의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즐거움

소통의 장 형성 :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온라인으로 전환되거나 병행하는 행사가 많았습니다. 실시간으로 함께할 수 있다는 점은 온라인의 장점이지만, 얼굴을 마주하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어서 아쉬웠는데요. 공론장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장이 형성되어 즐거웠습니다. 단순히 이야기를 나누는게 아니라 의제와 관련해 일상에서 느끼는 어려움, 공익 활동으로 풀어나가고 싶은 아이디어, 서울시에 정책으로 제안하고 싶은 의견 등이 모여 더욱 더 풍성한 공론장이었습니다.

사회문제에 대한 시민의 경향성 파악 : 우리에게 다 각자가 생각하는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개인에게 한정된 문제일 수도 있고, 사회공통의 문제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혼자 생각하고, 혼자 고민할 때는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고, 나만 겪는 문제인가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꺼내어 함께 이야기할 때 내가 생각하지 못한 해결 방안을 발견하기도 하고, 같은 문제를 겪는 사람들과는 공감대가 형성되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 자체로 해결이 되는 경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론장의 유익과 즐거움이 여기에 서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실제로 만족도 조사에 참여한 시민들의 의견 중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문제들에 대한 다양함을 알게 되어 좋았음" 이라고 작성해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이번 공론장을 통해 5개 의제에 대한 인식 확대와 더불어 시민공론장에서 나온 다양한 사회 문제들까지 다뤄봤는데요! 모든 문제를 한번에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우선순위를 정하여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와 함께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3. 총평

2023년, 미령과 예지 매니저는 온 몸으로 공론장을 경험했고 배웠습니다. 예지 매니저는 공론장을 배우기 위해 다른 단체에서 하는 공론장이란 공론장은 다 가본 것 같습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올 한 해 공론장 사업을 진행하며 느꼈던 것을 교훈삼아,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잘했던 부분은 발전시켜 언젠가 있을 새로운 공론장에 잘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애증의 공론장, 다음에 만나면 반갑게 인사해줄게!

부록 1 _ 만족도 조사지 양식

2023 시민공익활동지원플랫폼 의제공론장 <○○○○○○○○○○> 만족도 설문

안녕하세요.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2023년 시민공익활동지원플랫폼 의제공론장 <○○○○○○○○○○> 참여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과 향후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의처 : 활동지원팀 최미령, 박예지 매니저 (☎ 070-7727-7058~9)

응답자 정보

1] 귀하의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나요?

- 1. 10대 미만 (~만9세)
- 2. 10대 (만10세~19세)
- 3. 20대 (만20세~29세)
- 4. 30대 (만30세~39세)
- 5. 40대 (만40세~49세)
- 6. 50대 (만50세~59세)
- 7. 60대 (만60세~69세)
- 8. 70대 이상 (만70세 이상~)

2] 어떤 기대로 신청하셨을까요?(중복 선택 가능)

- 1. 단순 호기심
- 2. 평소 주제 관련 관심이 있어서
- 3. 사람들과 주제 관련 대화를 나눠보고 싶어서
- 4. 주변에서 추천받아서
- 5. 기타 ()

만족도 조사

문 1] 각 질문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1, 2, 3, 4, 5점 중에서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는 정도가 클수록 높은 점수, 작을수록 낮은 점수를 주시면 됩니다.

평가 요소	매우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01) 나는 전반적인 공론장 내용 및 수준이 적절하게 구성되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02) 나는 공론장 시간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03) 나는 공론장 진행 방법(발제, 토의 등)의 편성 비중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04) 공론장에 대한 안내가 충실하게 제공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05) 공론장 내용에 맞는 충분한 사전 준비, 동기 부여 및 참여 유도가 가능한 기법을 활용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06) 나는 공론장에서 제시된 안건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07) 나는 공론장 진행 환경에 만족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08) 나는 공론장의 결과물에 만족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09) 향후 비슷한 주제의 공론장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공론장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부록 2 _ 정책제안서 양식

문 2] 본 공론장에서 도움이 되었거나 개선이 필요한 점을 자유롭게 작성해 주십시오.

-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서식 2023년 시민공익활동지원플랫폼 정책제안서 양식 출처: (주)회의설계소

○ 사업제안 신청인			
제안자			
연락처		이메일	
○ 제안사업 내용			
관련분야 (√)	① 아동권	② 외로움	③ 순환경제
	④ 보행권	⑤ 디지털 약자	⑥ 기타
사업명			
사업위치			
소요예산			
사업기간			
현황/문제점 (제안취지)			

사업 내용 (개선방안)	
기대 효과	
기 타	
2023년 월 일	

공익활동 바.자.회.

공론장을 경험해보지 않은 담당자들의 좌충우돌 공론장 만들기

발행일: 2023년 12월 21일(seoulpa 2023-A-005)

발행처: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주소: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1동 지하1층

대표전화: 02-734-1109

이메일: contact@seoulpa.kr

홈페이지: www.seoulpa.kr

디자이너: (주)한브릿지

* 이 저작물은 국제라이선스 CC BY-NC-ND(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